
리뷰 [Love and Fall Review thread #2 Runaway](#)

2017.09.26 21:19

○○

조회수 1415 추천수 7 댓글 253



작사 BOBBY 작곡 BOBBY , CHOICE37 편곡 CHOICE37

- MV Teaser

BOBBY - 'RUNAWAY' M/V TEASER



- MV



- MV Making

BOBBY - 'RUNAWAY' M/V MAKING



- 가사

I wanna runaway
I wanna runaway
I wanna runaway

모든 게 이제는 지긋지긋해서
작은 일들에 기분이 쉽게 삐뚤삐뚤해져
혼자 오는 퇴근길이 시끌시끌해도
나와 관계없는 웃음뿐 고갤 떨궈 계속

정신없이 달렸지 어른이 된지 모르고
걱정 없이 사는 척 엄마 걱정을 덜으려
집에 도착하면 씻고 불 끄고 누워도

이제는 꿈보다 현실이 무거워
잠을 못 들어 So I sing

거울 속에 왜
더 이상 내가 알던 내 모습이 아닌데
꿈을 쫓고 싶은데
내 어깨에 책임이라는 짐이 걸릴 때

비틀거리는 나를 보고 있다면
여기서 나를 데려가 줘 멀리
I wanna runaway
Yay ye yay ye

아무도 날 모르는 곳에
아무도 찾지 않는 곳에
쓰러진 날 일으켜줘
I just can't go on 날 데려가 줘
I wanna runaway

실수를 실패로 생각하는 버릇이 생겨서
실패를 하기 싫어 자꾸만 시도를 그르쳐
다치기 싫어서 새로운 만남을 기피해
혼자 우는 쪽이 편해 눈치 볼 필요 없어서

내 침대에 누워도 내 집은 아닌 것 같아서
그저 어딘가 먼 데로 떠나가고 싶어져
내일은 해가 뜬다라는 희망을 찾아도
좋은 아침이란 말엔
아무도 진심이 없어 So I sing

거울 속에 왜
더 이상 내가 알던 내 모습이 아닌데
꿈을 쫓고 싶은데
내 어깨에 책임이라는 짐이 걸릴 때

비틀거리는 나를 보고 있다면
여기서 나를 데려가 줘 멀리
I wanna runaway
Yay ye yay ye

아무도 날 모르는 곳에
아무도 찾지 않는 곳에
쓰러진 날 일으켜줘
I just can't go on 날 데려가 줘
I wanna runaway

Runaway
Oh nanana

거울을 보는 내 눈빛
힘 없이 무너진 두 발
거울 속 남자가 또
낯설게만 바라보네 Yeh ye

괜찮아질 거야 멀리
이 긴 방황의 저 끝에
내가 찾는 내 모습이
날 기다리고 있길 Yeh ye
Yeh ye ye

길을 잃어버린 나는
이젠 지쳐서 나아갈 수 없어
여기서 나를 데려가 줘
숨쉬기 어려워
Yeh ye

길을 잃어버린 나의
손을 잡아줘
I don't know why I'm here
I wanna runaway
I wanna runaway

아무도 날 모르는 곳에
아무도 찾지 않는 곳에
쓰러진 날 일으켜줘
I just can't go on 날 데려가 줘
I wanna runaway


[☰ 목록](#)
[Facebook](#)
[Twitter](#)
[Google](#)
[Pinterest](#)


Comments '253'

« 1 2 3 4 5 6 »

○○ 2017.09.26 21:23

어이쿠 깜짝이야 주황주황한 글이 볼썽 생겨났네 그럼 이제 시작해 볼까

댓글

○○ 2017.09.26 21:24

뭐부터 말해야하지...

너무 할말이 많으니까 좀 생각하게 된다

런어웨이 이걸 음악도 그렇고 유비도 그렇게 참 생각할것도 많고 할 말도 많은 곡이다

댓글

↩ ○○ 2017.09.26 21:25

그니까 ㅋㅋㅋㅋㅋㅋ 말문이 턱 막혀버렸다

근데 뭐 어제오늘일도 아니다 나는.. 무럭

드립만 칠 줄 알았지 리뷰다운 리뷰 쓴적이 없는것 같으다

 댓글 ○○ 2017.09.26 21:26

하나씩 풀어가보자 ㅋㅋㅋㅋㅋㅋ
그냥 나오는대로 지껄이는거지 뭐 ㅋㅋㅋㅋㅋㅋㅋㅋ

 댓글 ○○ 2017.09.26 21:29

할 말이 하나도 없는 곡이기도 하다

누군가의 이야기가 너무 진솔하면 추임새조차도 삼키고 가만히 들어주게 되는 것처럼
호응도 조연도 위로도 아무것도 필요없는 공감이라서

 댓글 ○○ 2017.09.26 21:36

나는 그래서 곡 자체보다는 유비나 뜬똥의 목소리가 주는 호소력 그런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말하고
싶다 ㅋㅋㅋ

이건 정말 안그래도 나노로 파면서 갖고싶은 부분이긴 했다 ㅋㅋㅋ

 댓글

○○ 2017.09.26 21:29

일단 나는 객적으로 이 곡을 처음 들었을때는 사랑해 다음에 이어서 들어서 그런지 그냥 흘리듯이 들었다.

유비를 보고 난 후에 다시 곡을 들으니 그제야 곡의 느낌이랄지 그런게 확 와닿았고 그 뒤에 가사에 대해
음미하게 되고 그 상황에 대해 생각하게 되고 내 상황을 같이 오버랩하면서 곡과 교감하게 되고 감정이입
하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일단 유비에 큰 점수를 주고 싶고 유비에 대해 좀 말을 많이 하고 싶다 ㅋㅋ

 댓글 ○○ 2017.09.26 21:35

첨부 (1)

유비에서 첨에 돌아가는 테잎 이거 보면서 첨에 티저로 뺐을때는 성경 문구에 집중을 했지만 계속 보면
서 그 테이프가 참 눈에 띄더라 말이다 ㅋㅋ

첨에 후즈백 뺐을때 테잎 있던거 기억나냐 ㅋㅋㅋㅋㅋㅋ



지금보면 이 티저가 딱 두개 타이틀곡을 표현하고 있는 것 같다 ㅋㅋㅋ
노란 운동화는 사랑하고 저 옆에 테이프는 런어웨이고 ㅋㅋㅋㅋㅋ

엠피상으로 음악 환경이 변하면서 지금은 테이프를 거의 쓰지 않는데 첫 도입이 테이프라는게 이게 좀
뭔가 감독이랄까 뜬뚜가 말하고 싶은게 있었던거 아닐까 생각한다. 이어서 바로 뜬뚜가 우는 모습이 클
로즈업되서 나오고

유비를 이게 꼼꼼히 따지고 보면 한장면 한장면 놓칠게 없는 부분이란 생각이 든다.

댓글

○○ 2017.09.26 21:37

댓글로 쓸거냐? 논문 써야할 거 같은데

아 아니다 흐름 끊지 않겠다 나중에 글로 옮기던가 해라 ㅋㅋㅋㅋㅋㅋㅋㅋ

댓글

↩ ○○ 2017.09.26 21:44

그냥 나도 새댓글로 달아야겠다 ㅋㅋㅋㅋㅋㅋㅋㅋ

댓글

○○ 2017.09.26 21:43

뜨뚜 목소리에 대해 내가 정말 말하고 싶었는데 ㅋㅋㅋ

런어웨이는 뜨뚜의 장점이 정말 잘 살아있는 곡이라고 생각한다

곡 자체의 비트가 특이하거나 그런게 아닌데 뜨뚜의 목소리가 곡에 특징을 주고 좀더 사람을 집중하게 하고 감정이입하게 만든다.

특히 거칠게 굼는 목소리로 뭔가 절규하는 듯한 느낌을 주는데 아마 다들 이 부분에서 많이들 눈물지을거라 예상한다 ㅋㅋㅋ

가사가 주는 호소력도 있는데 난 그 가사에 울림을 주는건 바로 뜨뚜의 목소리라고 생각하고 뭐라고 해야 되지 빨려든다고 해야되나 그런게 있단 말이지 ㅋㅋㅋ 더이상은 내가 어휘력이 딸려서 말을 못하겠다 ㅋㅋ

이거 원 맘놓고 읽고 싶어도 문장이 안되서 못하다니 ㅋㅋㅋㅋ

책을 읽으라고 할때 좀 읽어둘걸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댓글

○○ 2017.09.26 21:50

음 지금 다시 봤는데 보다가 이제 알았다!

깨지는 장면 담에 눈 깜짝 이는 장면 나오고 깜깜하던 복도에 불이 켜지면서 문이 나오며 다시 눈이 나오잖나

이게 혹시 내면에 들어가는 뭐 그런걸 표현한거 아니냐!

뜨뚜의 속마음으로 들어가는거지!!

이거 진짜라면 대박이다 ㅋㅋㅋㅋㅋㅋㅋ 미친 ㅋㅋㅋㅋㅋㅋ

댓글

○○ 2017.09.26 22:02 (219.*.230.*)

솔직히 런어웨이는 음악스타일 자체는 이앨범 중에 가장 나의 취향과 거리가 먼 곡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노래가 너무 특별하게 느껴지는 것은 그만큼 뜨뚜가 나에게 어느새 너무나 특별한 사람이 돼버렸기 때문 아닌가 싶다

뜨뚜가 인터뷰에서 어머니가 이곡을 안좋아하신다고 했는데 비슷한 이유로 나도 이곡이 참으로 아프고 불편하다

뜨뚜엄마도 아닌 니가 왜? 그치?

원래부터 19살의 뜨뚜부터 지켜봐오면서 나름 쿨한 팬이라고 생각했는데..그렇지도 않더라

뜨뚜가 노래하는 아픔을 왠지 내가 알것 같고 필요 이상으로 공감돼서 당황스러울만큼 아프더라고

하루 종일 심장이 너무 아프더라고

뜨뚜야! 난 쿨한게 좋지만 너와는 핫하고싶나봐 ㅎㅎ



간지, 폭발적 에너지와 같은 뜨뚜의 대표적 얼굴과 정반대이지만 이 또한 뜨뚜의 또다른 얼굴이라고 생각함
 그것도 아주 매력 넘치는..
 그래서 내가 뜨뚜로부터 런어웨이 할수가 없는ㅎㅎㅎㅎ

댓글



○○ 2017.09.26 22:16

나는 오히려 좀더 뜨뚜가 절절하게 내면의 아픔을 토로하는 그런식으로 곡이 갓어도 좋았을꺼라고 생각했는데 ㅋㅋㅋ
 그렇다고 내가 변태는 아니다 ㅋㅋㅋㅋ

그냥 울려면 아주 평평 울어버리고 확 털어내는 그런 느낌이길 바래서 ㅋㅋㅋ
 사실 런어웨이 첨에 티져 뜨고 소개 들었을때 곡이 좀더 잔잔하게 담긴 느낌인지 알았다
 내 생각보다는 크고 환한(?) 느낌이라 좀 뜻밖이네 싶었다 ㅋㅋㅋㅋ

댓글



○○ 2017.09.26 22:19 (219.*.230.*)

무슨말인지 알것 같다
 생각보다 크고 환한 느낌였다는거 공감

댓글



○○ 2017.09.26 22:25

ㅁㅈ 생각보다 크고 환한 느낌ㅋㅋㅋㅋ티져 뒀던 잔잔한 아워너런어웨이 부분이 더 많았어도 좋았겠다 싶어

댓글



○○ 2017.09.26 22:33

이거 또 그거다 무지개 끝 황금단지에 들어있는 그거

댓글

○○ 2017.09.26 22:09

집 안 방안과 부모님은 바비의 유년시절과 연결되어 있다
 따뜻한 집을 떠나 혼자 한국에 온 그의 상황을 보여준다
 어린바비와 오버랩 되는 부분은 어느새 훌쩍 자랐지만 과거로 돌아가고픈 마음을 표현한다
 그러나 성인바비가 결국 여권을 들고 집을 나왔다는 점에서 그는 그의 결정에 후회하지 않기로 한다

현실의 답답함과 뜻대로 풀리지 않는 마음을 병동에 갇혀있는 것으로 표현
 해방되고자 유리를 부셨다 (문 자체를 부수지는 못했다) 그러나 여전히 병원 안이다
 차를 몰고 나왔지만 그 차와 함께 나오는 건 애초에 길이 막혀있는 섬이자 낭떠러지이다(꿈과 현실)
 밤마다 탈출하여 차 없이도 도로를 질주하는 자신(꿈) - 도망칠 수단인 차들이 머리위로 낙하(현실)
 교회가 나옴으로서 이런 마음을 종교로서 다잡아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깨부순 문 말고 다른 문으로 나와서 '낮'에 질주하는 모습은 자신 안에서 결론을 냈다는 의미로 보인다
 그 이후에는 비가 오고 밤이 되고 신발이 불타 떨어져도 현실에서 눈 돌리지 않기로 한다

병원의 불이 꺼진 것은 완벽한 탈출을 의미하며
 마지막 장면의 문은 처음 그가 깨부췄던 문이고 원래 있던 차도 함께 사라졌다
 =갇은 고민과 노력 끝에 탈출 성공(정신적으로 괴롭히는 것들에서의 탈출)

 댓글 ○○ 2017.09.26 22:15 (219.*.230.*)

유비 제작자냐?
 원데 이렇게 완벽하게 맞는거 같지?
 그냥 나랑 같은 일개 병자 맞냐?
 유비를 다른 눈으로 보게 될것 같다
 멋진 해석 너무나 고맙다
 사랑해 (뜨뚜 타이틀곡)

 댓글 ○○ 2017.09.26 22:18

진짜 해석 감탄 나온다 ㅋㅋㅋㅋ
 그러고보니 그럴네! 병자의 해석을 듣고 유비를 보니 또 다르게 다가온다!

 댓글 ○○ 2017.09.26 22:32

화아 이거 읽고 유비 다시 보는데 소름이 쭉 돋았다

 댓글 ○○ 2017.09.26 23:49

와.. 이거 유비 해석 소름에 감탄의 연속이다.
 대박..

 댓글

○○ 2017.09.26 22:12 (219.*.230.*)

유비 얘기를 덧붙이자면
 솔직히 유비 티저를 접했을 때의 가슴 뛰게 했던 것에 비해선 다소 평범하고 상투적이었다
 티저가 주는 기대감이 그만큼 엄청났기 때문일지도 모르겠다
 그 비장한 분위기와 뜨뚜 목소리의 조화가 정말 소름돋게 좋았었거든
 특히 성경구절..난 종교따위 없는데..성경같은거 모르는데..머리를 한대 맞은것 같은 느낌이었다
 뜨뚜의 고독과 고뇌 속을 조금이나마 들여다본 느낌!
 런어웨이는 노래도 유비도 뜨뚜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특별할 수밖에 없을거라고 생각함

 댓글

○○ 2017.09.26 22:15

미친해석 하나 하자면 저 병동은 김밥집이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댓글 ○○ 2017.09.26 22:17

감독병자 그렇습니까?

 댓글 ○○ 2017.09.26 22:17 (219.*.230.*)

미친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그런데 묘하게 설득당하고 싶고ㅋㅋㅋㅋㅋㅋㅋㅋ

 댓글

○○ 2017.09.26 22:21

ㅅㅂ 진지하면 죽는 병이라도 걸렸냐 병자새끼들 ㅋㅋㅋㅋㅋㅋ

댓글

↩ ○○ 2017.09.26 22:22

아 왁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여기 원래 병동이잖냐!!! 마침 병원 아니냐 저거!!! 나한테만 병원으로 보이냐ㅋㅋㅋㅋㅋㅋ

댓글

↩ ○○ 2017.09.26 22:35

나도 사실 침부터 그 생각했지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혼자만 후훗하고 있었다 ㅋㅋㅋㅋ
역시 병자들 생각하는거 다 비슷하다 ㅋㅋㅋㅋㅋㅋㅋㅋ

댓글

↩ ○○ 2017.09.26 23:03

솔직히 난 오늘 알았다 저곳이 병동이라는 것을...
ㅇㅅㅇ이지만 한동안 병원에 있었다
그 안에서 참 많은 생각과 좌절과 아픔을 겪고 지금에 와 있는데
그래서 약간 지금 이 순간도 꿈인지 현실인지 잘 모르겠을 정도로 혼란스럽다
그런데 런어웨이라는 곡이 나를 현실로 먹살잡고 데려다 놓았다
고맙지만 야속하고 야속하지만 고맙다 뜨뜻한데

댓글

↩ ○○ 2017.09.26 23:06

병자 댓 보고나니 몸에서의 병동씬이 뭘 말하려고 했던건지 좀 대충 알거 같다 뭔가 뭉클하네

댓글

↩ ○○ 2017.09.26 22:56

ㅅㅂ ㅋㅋㅋㅋ

댓글

○○ 2017.09.26 22:19

병자들이랑 리뷰 하는 이 시간이 넘 좋다 ㅋㅋㅋ 급 기분 좋아져서 햄 하나 뜯었다 ㅋㅋ
햄 좀 볶고 오겠다 ㅋㅋㅋㅋㅋㅋ

댓글

↩ ○○ 2017.09.26 22:20

햄을 뜯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댓글

↩ ○○ 2017.09.26 22:38

뜯어서 지금 먹고있다 ㅋㅋㅋ ㄹㅇ 꿀맛이다 ㅋㅋ

댓글

↩ ○○ 2017.09.26 22:48

원행이나 나도 좀 줘

댓글

2017.09.26 22:23

뜨뜻은 정말 도망치고 싶을때 이런 가사를 쓰며 이겨냈고 좋은 성과를 이뤄냈지. 얼마나 힘든 순간이 많았을까 연습생 때부터 지금까지. 그런데 잘 견뎌냈으니 지금의 바비도 있는것 같아.

나도 정말 도망치고 싶은 순간이 있었는데, 어쩌면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도망치고 있는건지도 몰라. 뜨뚜가 일상의 탈출이었고 이젠 거의 일상이 돼버렸는데 런어웨이가 만들어지는 동안 난 무얼 이뤄냈나 되돌아 보게 됐어.

아이러니하게도 도망가고 싶은 마음을 곡에 담고 있는데 듣는 나로서는 도망치던 내 자신을 붙잡게 되는 곡이야. 마치 슬픈 노래를 들으면 위안이 되는 것과 비슷한걸까. 그게 바로 많은 사람들이 이 곡에 공감하고 감동받는 이유같다.

가사 전체가 좋지만 그 중 인상 깊은 부분은

이 긴 방향의 저 끝에
내가 찾는 내 모습이
날 기다리고 있길

뜨뚜가 찾는 미래의 모습은 뭘까
그게 어떤 모습이던 간에
행복할거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병자들도 행복하자

댓글

2017.09.26 22:26

공감한다...

나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고 아문척 보이는 상처조각을 다시 보게되어

사실 나에게도 너무 아픈 노래다

그렇지만 동시에 듣고있으면 나 혼자만 이렇게 아프고 힘들게 아니라는 사실 때문에 위안을 받기도 한다

진짜 진짜 우리 행복하자 다들
아프지말고

댓글

2017.09.26 22:28 (219*.230.*)

악! 넘 따습다

뜨뚜의 미래와 병자들의 미래에 서로가 함께일수 있으면 좋겠다

각자 그리는 바는 너무나 다양하겠지만 어떤 모습이건 서로 지금처럼 음악으로 연결된 사이일 수 있으면 참 행복할 것 같다

댓글

2017.09.26 22:38

뜨뚜가 어떤 미래를 찾는 그 미래에 우리 병자들은 꼭 같이 있을꺼다 ㅋㅋㅋㅋ

우리 다들 행복해지자 같이 햄 좀 뜯어라 ㅋㅋㅋㅋㅋㅋ

댓글

○○ 2017.09.26 22:57

여기저기서 햄 뜯는 소리 들린다 ㅋㅋㅋ

댓글

↩ ○○ 2017.09.26 23:51

악 진지하게 읽는데 햄ㅋㅋㅋㅋㅋㅋ 미치겐네 ㅋㅋㅋㅋ

댓글

↩ ○○ 2017.09.26 22:59

지금 상황에서 도망치고 싶을때 차 끌고 밤에 짹짹 보면서 들으면 좋겠군 하고 처음엔 생각했는데 결국 듣게 되는 순간은 그렇게 짹짹 밟고 갔다가 마음을 추스리며 돌아오는 길에 듣게 되더라

.. 미친놈 어케 이런 곡을 만들지

댓글

↩ ○○ 2017.09.26 23:07

그니까!

그래서 침에 앨범 나오고 우리가 그랬잖냐!

어떻게 이런 곡을 만들어냈냐고 미쳤냐고! ㅋㅋㅋㅋ

댓글

↩ ○○ 2017.09.27 14:54

뜨뚜가 일상의 탈출이었고 이젠 거의 일상이 돼버렸는데

너무 공감 ㅎㅎ

댓글

○○ 2017.09.26 22:40

이 곡이 2년 전에 나왔다면 아마 심장이 찢어져서 못 들었지 않았을까
지금이기에 그나마 편안하게 감싸안으며 들을 수 있는건 아닐까

그렇다면 과연 지금 나온 것이 다행인건가
창작이라는건 결국 내면에 있는 감정을 낱알이 뜯어 헤쳐내는 일이고
대중예술가란 그 내면에 있는 갈갈이 뜯어낸 감정을 팔아먹는 업일진데
가장 날 것일때 팔아먹지 못 했음을 아쉬워해야 하는건가

댓글

↩ ○○ 2017.09.26 23:00

댓글 추천이 없어서 아쉬워하고 있다. 명문이다...많은 생각이 들게 하는 글

댓글

↩ ○○ 2017.09.26 23:08

역시 댓글을 반짝거리게 하는 기능을 좀 넣어달라고 임병장에게 건의해야될거 같다

댓글

↩ ○○ 2017.09.27 13:11

↳ 그런거 요청하지마 하지마 안되는건 안 되는거야 그러지말자 응?

댓글

↳ ○○ 2017.09.26 23:02

청국장과 묵은지를 좋아하는 나로서는 가장 날것일 때도 좋지만 약간 묵혔다가 잘 숙성됐을 때 내보내는
것도 좋다고 생각된다ㅋㅋ

댓글

« First **1** 2 3 4 5 6 Last »

댓글 새로그침

Comments '253'

« 1 2 3 4 5 6 »

↳ ○○ 2017.09.26 23:02 (219.*.230.*)

대공감

댓글

↳ ○○ 2017.09.26 23:03

이 곡이 2년전엔 어떤 곡이었는지가 궁금하다

궁예지만 분명 지금과는 다른 모습이었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런데 이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추스러지는 듯한 이 느낌은 우리가 병자라서 받는거냐 아니면 원래 그렇게 느껴지는 곡인거냐

도저히 이 곡은 병자라는 숙명에서 벗어나서는 들어지지가 않아서 객관화가 불가능하다

댓글

↳ ○○ 2017.09.26 23:05

제목은 도망가 지만

결국은 도망가 지마

댓글

↳ ○○ 2017.09.26 23:08

솔직히 심장이 찢어지더라도 가장 날 것일때 팔아먹기를 원한다

그 시기 그 순간에만 나오는 날 것의 감성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흐르면 모두 달라지잖아.

그치만 내면이 들어나는 곡을 좀더 적나라하게 날 것으로 원하면 욕심이겠지. 자칫해선 부르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힘든 곡이 될 수 있으니

댓글

↳ ○○ 2017.09.26 23:28

나도 날 것일때 팔아먹기를 원하는 부류다

그래야 더 많은 이의 심장을 두드린다고 봄

댓글

○○ 2017.09.26 22:40

솔로 앨범 준비할 때 제일 먼저 만든 거라 그런지 스타일적으로 다른 곡들보다 약간 올드한 느낌이 없잖아 있다 다른 곡들 랩핑은 더 트렌디한데 이걸 좀 더 한국 대중가요적이고 별 기교 없이 진중하게 이모션낼한 쪽으로 풀어가는 랩 스타일의 연장선에 있는 곡 같았다.

근데 가사나 곡 분위기나 하나하나 절절하게 내면을 너무 막 건드려서 솔직히 되게 듣기 힘들었던 곡이기도 했다 개인적으로. 나도 꿈 쫓으면서 좌절하고 벽에 부딪히고 그랬던 적이 너무 많고 현실도피 하려고 뜨뚜 파고 그랬었던 것도 있다 솔직히ㅋㅋ 지금도 힘든 시기라서 이 노래 들으면서 되게 좀 그랬다ㅋㅋㅋ뜨 꿈했다ㅋㅋㅋ 뜨뚜 웃는 거 보면서 현실 잊고 싶었는데 이 노래 들으면 내가 맞서야 하는 현실이랑 내가 쫓고 싶은 꿈 같은 게 자꾸 떠올라서 괴로워지더라ㅋㅋ 근데 그만큼 노래에 공감이 되고 저 정서에 꼭 빠지게 되었기 때문에 그러는 것 같다. 이 사람도 나처럼 힘들었구나, 아직 못다이룬 꿈이 있어서 어려운 일도 참고 견디는 그런 사람이구나 싶었다. 근데 애도 이렇게 괴로워하면서도 결국 할 일 잘 하고 허슬하는데 나도 본받아서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도 들었다. 아워너런어웨이~하는 걸 들으면서 결국 도망가면 안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막 또 힘들면서도 힘이 나고 듣기 괴로우면서도 위로받는 것 같고 여러 생각이 든다. 사실 쇼미때 반했던 게 이런 복합적인 측면 때문이었는데 그 이후로 막상 뜨뚜의 밝은 모습만 보면서 힐링 받으려고 했었던 것 같기도 하고ㅋㅋ 다시 뜨뚜의 이런 치열하고 절절한 모습을 보니까 나도 좀 더 정신 차리고 싶고 그런 기분도 든다.

그리고 인터뷰에서는 놀고싶는데 못 놀아서 힘들었다~ 이런 식으로 약간 가볍게 풀어서 이야기했더라도만 가사 공감이 음미해 보면 좀 더 복합적이고 깊은 감성이 느껴진다. 하고싶은 일과 해야하는 일 사이에서의 고민이라든가 주어진 선택지에 갇혀 있는 것 같은 기분이라든가. 혼자서 어떻게 한다고 쉽게 벗어날 수 없으니까 자길 어딘가로 데려가달라고 하는 것 같았다. 정 소원이라면 어디로 납치해드리고 싶긴 하지만 내 코가 석자라 강 됐고 알아서 잘 했으면 좋겠다ㅋㅋ 어쨌든 그 모든 힘든 순간들이 나중에 있을 기쁜 순간을 더 아름답게 만드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야지 싶었다. 뜨뚜도 이런건 이미 알고 있겠지만, 원하는 만큼 자유롭게 행복했으면 좋겠다. 뜨뚜도 병자들도.

댓글

2017.09.26 22:45

병자말 다 받는다.

비트 자체가 막 세련되고 신선하고 그런 느낌은 없지만 대신 그만큼 깊이가 있고 뜨뚜의 진심을 잘 느낄 수 있는 곡이다.

나는 10개의 곡들 중 제일 뜨뚜의 감정이 묻어나는 곡이 바로 이 런어웨이 곡이라고 생각한다.

해서 소속사 사장님도 이 곡이 뜨뚜를 잘 표현한다고 해서 좋아했다고 하지 않았나

댓글

2017.09.26 22:47 (219.*.230.*)

음 약간 올드한 느낌이 있다

올드해서 덜 세련된건 분명한데 반대로 그래서 호소력은 더 강하게 전달됐던거 같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예전 리쌍 음악 같은 느낌을 좀 받음

뜨뚜에게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분위기였다

댓글

2017.09.26 22:53

나는 곡보다는 유비 연출이 좀 더 올드하다고 느껴진다.

곡만 들으면 올드하다기 보다는 트렌드와는 상관없이 만든 곡 이란 느낌이 더 많이 듬

댓글

2017.09.26 23:01 (219.*.230.*)

ㅁㅈ 유비가 더 올드하다 1년 전에 만든거라 그런가? 생각도 해보고 좀 아쉬웠는데 위에 제작자 방의한 병자 해석을 보니까 훨씬 좋아졌다ㅋㅋㅋㅋ

댓글

2017.09.26 22:52

맞아 약간 2000년대 초반 감성이 느껴졌다. 댓글에서도 종종 나잇대 있어보이는 남성?들이 오랜만에 요즘 느낌아닌 자기 시절의 감성곡 찾았다고 좋아하는 게 보였음.
글 다 받고 나도 비슷한 이유로 이 곡을 들을때 복잡한 생각이 들었다

댓글

○○ 2017.09.26 23:02

워 병자들 댓글 읽다보니 숙연해진다
다들 언어영역 만점들만 모였는지
퀴스펙
좋은 예술은 또다른 예술을 낳는다 생각하는데
병자들 댓글 보니 뜨뚜가 참 좋은 일 했다 싶다
나병자는 이 곡을 내가 힘들다는 걸 인정하기 힘들때 찾아 듣는데 묘하게 메마른 감정을 건드려서 울음을 터트려주는 기능을 한다
그렇게 이 곡이 그냥 지나가는 곡이 아니라
스테디 셀러가 되었음 좋겠다
물론 나병자에겐 이미 그런 존재다

댓글

↩ ○○ 2017.09.26 23:09

병자들 다들 말을 넘 잘하고 잘나서 가끔 위기감 느껴진다 ㅋㅋㅋㅋ

댓글

○○ 2017.09.26 23:08

희망(?) 적인 가사라곤

괜찮아질 거야 멀리
이 긴 방황의 저 끝에
내가 찾는 내 모습이
날 기다리고 있길 Yeh ye
Yeh ye ye

딱 이거 한 부분인데
뭔가 언어때 구절이랑 상통하는 부분이 있긴 하다만
대체 어느 부분에서 나는 그래도 살아야지. 그래도. 걸어가야지를 느끼며 자꾸 다시 서게 되는거냐.
굳이 이 가사 때문만은 아닌것 같아서

그냥 이 곡이 나왔다는 사실 자체에서 그렇게 받아들여지는건가?

댓글

↩ ○○ 2017.09.26 23:17

i wanna run away 라고 하면 왠지 진짜 도망간 것 같진 않다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그 큰 그림 속의 나는 내가 아닌 것 같고 방향도 모르겠고
혼란 속에서 괴로워서 도망치고 싶지만 결국 도망치진 않았다
더 큰 곳에 세우시리라는 믿음도 함께 있었을 것 같고

나병자는 저 희망적인 가사 바로 다음에 나오는 뜨뚜의 목소리에서
뭔가 확신을 느꼈다 (물론 가사는 여전히 방황하고 힘든 나를 표현하고 있지만)
그래서 그 부분에서 가장 울컥한다
뭔가 찬송가 같은 것 부를때 울컥하는 그런 느낌으로다가 말이다

 댓글 ○○ 2017.09.26 23:22 (219.*.230.*)

길을 잃어버린 나는 더이상 날아갈 수 없어
 그부분 말이지?
 맞다 내용은 여전히 암울하지만 뜬뚱의 목소리에서 뭔가 극복하고 확신하는 것이 느껴진다
 병자들 덕분에 제대로 파헤쳐보게 되네
 아 너무 좋다! 이런 병자들이라서!
 또 이렇게 풍부한 이야기거리가 있는 런어웨이를 우리에게 던져준 뜬뚱에게 너무 고맙고

 댓글 ○○ 2017.09.26 23:23

맞다맞다 ㅋㅋ 써놓고 진짜 그런가 다시 들어봤는데 ㅋㅋㅋㅋ 아니라그럴까봐 졸았었다 ㅋㅋ

 댓글 ○○ 2017.09.26 23:46 (219.*.230.*)

아 왜 쪼는데ㅋㅋ 코여운척 하지마라ㅋㅋㅋㅋ
 가사는 더이상 날아갈 수 없다고 하고 있는데
 뜬뚱 목소리는 다시 힘차게 날개짓을 시작하는 느낌을 준다
 목소리 색깔 표현력 미치겠다고!!

 댓글 ○○ 2017.09.26 23:48

코여운척 아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
 정말 그런 감정을 표현을 하려고 그렇게 한건지
 아니면 감정이 실려서 그런 목소리가 나온건지
 저절로 그렇게 느껴졌다고!
 어느 쪽이라도 멋지다 정말 뜬뚱는

 댓글

○○ 2017.09.26 23:09 (220.*.119.*)

가사가 결국 **I WANNA RUNAWAY**로 끝나는데 결국 도망만 가고 싶어하다 끝나는 결말이라 언젠가 뜬뚱
 가 도망가서 자유롭게 노는 그런 곡도 써줬으면 좋겠다 이 곡만 들으면 마치 배드엔딩같아서 곡이 끝나갈
 때마다 마음이 아프다ㅋㅋ 희망만 간직한채 끝나는 드라마같달까 마치 희망만 바라다 연극의 막이 내리는
 거 같달까

 댓글 ○○ 2017.09.26 23:10 (220.*.119.*)

결론은 이 곡의 마지막을 보고싶다 이렇게 배드엔딩으로 끝내고 싶지않다 ㅋㅋ 런어웨이 후속곡도 내
 주렴 뜬뚱아

 댓글 ○○ 2017.09.26 23:15

후속곡 제목은 **come back to me** 같은걸로 하고 곡은 힘들어 방황하는 나에게 돌아오라고 애원하는
 식이지만 좀 부드럽고 잔잔하게 그러나 희망찬 분위기를 살려서 부르자 끝은 나는 지금 행복하니까!
 뭐 이런식으로

 댓글

↳ ○○ 2017.09.26 23:18 (220*.119.*)

그것도 좋다 ㅋㅋ 내가 생각한 건 제목을 GO AWAY로 해서 다 꺼져 내맘대로 살거야 하는 청량청량하고 그런 곡을 원한다 ㅋㅋ 끝은 행복하다로 끝내는건 너병자와 동일하다 잘 도망쳐서 행복하게 사는 뜨뚜의 노래도 듣고싶다 ㅋㅋ

 댓글

↳ ○○ 2017.09.26 23:28

그 제목도 좋다 ㅋㅋㅋㅋ 뭔가 런어웨이랑 느낌도 이어지고 ㅋㅋㅋㅋ

우리가 다 곡 방향을 정해놨으니 뜨뚜는 이제 작업만 하면 되겠군! ㅋㅋㅋㅋ

 댓글

↳ ○○ 2017.09.26 23:21

나 병자는 인간이 글러먹었는지 해피엔딩 안 보고 싶다
일단 엔딩이 안 보고 싶다

죽어서도 니 노래는 끝나지 않을거다 그런 존재가 되어라 김밥

 댓글

↳ ○○ 2017.09.26 23:24

나병자도 여기 붙을란다
뜨뚜 너는 네버에버랜드의 피터팬이 되어라 난 웬디가 될게 으하하

 댓글

↳ ○○ 2017.09.26 23:25

너 사실 스미

 댓글

↳ ○○ 2017.09.26 23:30

스미가 뭐냐
스밍하다 만거냐

 댓글

↳ ○○ 2017.09.26 23:32

첨부 (1)



스미 는 바로 이 농

댓글

2017.09.26 23:32

[illegible]

댓글

2017.09.26 23:34

그걸 또 갖고왔어 ㅋㅋㅋㅋㅋㅋㅋㅋ미친넘알ㅋㅋㅋㅋㅋㅋㅋㅋ

댓글

2017.09.26 23:35

이 놈!
병자에게 겁을 줘?

댓글

2017.09.26 23:35

웃 보라

병자복

너 스미

 댓글

2017.09.26 23:38

병자복

댓글

↳ ○○ 2017.09.26 23:40

뭐여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거 설명 찾아보니 스미가 악어 처리 전문반이었던 것 같다 ㅋㅋ
다른세상사람 리뷰에서 상세하게 적겠지만
후크선장(뜨뚜의 자아상)-병자복을 입은 스미-악어의 연결고리
오 소오름
게다가 스미가 인간적인 캐릭터라는 설명도 있으니
뭐 기분나쁘지 않게 받아들이는 걸로 ㅋㅋ

댓글

↳ ○○ 2017.09.26 23:41

오우 우리 단체로 피터팬 보고와야되는거 아니냐 ㅋㅋㅋㅋㅋㅋ 다른세상사람 리뷰하
기전에 ㅋㅋ 안그래도 내용이 기억안나서

댓글

↳ ○○ 2017.09.26 23:44

나병자도 어릴때 흘러 봐서 전혀 기억이 없다
기회되면 한번 봐야 쓰것어 ㅋㅋ

댓글

↳ ○○ 2017.09.26 23:54

아놔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댓글

↳ ○○ 2017.09.26 23:32

스미 윈데ㅋㅋㅋㅋㅋㅋㅋㅋ스미꼴이나

댓글

↳ ○○ 2017.09.26 23:33

스밍하다 말았대 ㅅㅂ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존나웃기백ㅋㅋ
ㅋㅋ

댓글

↳ ○○ 2017.09.26 23:57

스밍하다 말아서 스미 ㅋㅋㅋㅋㅋㅋ

댓글

↳ ○○ 2017.09.26 23:55

ㅅㅂ 아놔 개웃기네 진짜 병자들ㅋㅋㅋㅋㅋㅋㅋㅋ

댓글

↳ ○○ 2017.09.26 23:25

대박 ㅋㅋ 엔딩이 안보고싶대 ㅋㅋ

댓글

○○ 2017.09.26 23:29

ㅋㅋㅋㅋ 병자 맘에 든다 ㅋㅋㅋㅋㅋ 월 하려면 아예 확 갈때까지 가는 그런거 ㅋㅋㅋㅋ

댓글

↩ ○○ 2017.09.26 23:11

그 도망가고 싶다는 맘이 원동력이 되어 날 서게 하는건가. 란 생각을 하게 된다
요즘 개인사가 그래서 그런가

도망가려면 피죽이라도 먹고 걸어갈 힘이라도 길러야지 뭐 이런

댓글

↩ ○○ 2017.09.26 23:23

도망가고 싶다는 마음이 원동력이 되어 살아간다는 것
지금 곰곰히 다시 생각해보며 되씹고 있는데
개인적인 상황에 대입하자면 지랄맞게 슬픈 일인데
막상 그렇게 살아보니 사람이 살아진다
그냥 꾸역꾸역 숨이 붙어있어 살아지는게 아니라 진심으로 살고자해서 살아진다고 해야하나

그래서 난 도망가려고 산다(?) 결론 뭐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댓글

↩ ○○ 2017.09.26 23:34

도망가려고 산다 2222222

댓글

↩ ○○ 2017.09.26 23:59

아 나 이거 뭔지 알거같아 ㅋㅋㅋ 나도 사실 지금 내 현실에서 다 때려치고 도망가고 싶은데 사실
사람이 도망가고 싶은 이유도 더 나아지고 행복해지기 위한 아니냐? 그러다보니 현실에 맞서면서
도망을 위한 준비를 하게 되고 독해지더라고- 그래서 오히려 더 힘내서 전보다 더 빠르게 살고 있
는데 그런 느낌 아니려나

댓글

↩ ○○ 2017.09.26 23:36 (220.*.119.*)

그것도 공감한다 ㅋㅋㅋㅋ 너병자가 도망가려고 산다면 나병자는 끝을 보려고 사는 스타일인거같다
죽을 때까지 끝을 못 보며 끝을 추구하는 나도 어쩌면 런어웨이의 한 주인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
다 ㅋㅋ

댓글

↩ ○○ 2017.09.26 23:56

하 이거 진심 공감ㅋㅋㅋㅋ도망가려고 산다33333
근데 몇번 해봤는데 도망갔다 다시 돌아오면 휴유증이 길더라. 그냥 그 마음(원동력)만 가지고 현실
도망은 넣어둔채로 살아야겠어

댓글

Comments '253'

« 1 2 3 4 5 6 »

↳ ○○ 2017.09.26 23:59

그말도 맞다...

댓글

↳ ○○ 2017.09.27 13:14

아냐 그런 도망말고 진짜 아예 가버릴거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것을 전제로 한 도망

댓글

↳ ○○ 2017.09.27 15:06

어제 봤던 리뷰 댓글 지금 다시 찬찬히 읽어보고 있는데 최근에 본 영화 캐스트어웨이가 갑자기 떠오른다 거기서 주인공이 무인도에서 다시 살아 돌아와서 했던 대사가 기억에 남았었는데

I had to keep breathing. Even though there was no reason to hope.

뜨뚜나 병자들이나 희망이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내 뜻과는 관계없이 저절로 쉬어지는 숨처럼 그냥 끊임없이 현재를 지속해나아가면 그 끝에 내가 찾는 내 모습이 있지 않으려나 싶다

댓글

○○ 2017.09.26 23:11

뜨뚜는 지금도 곡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겠지
나는 그때의 순간순간의 감정을 나타내줄 수 있는 이런 런어웨이 같은 곡을 자주 내줬으면 좋겠다
그게 뜨뚜에게도 감정해소도 되면서 나중에 곡을 들으며 그때를 추억하는 일기장 같은 느낌이 되서 뜻깊은 일이 될꺼다 ㅋㅋㅋㅋ 그리고 우리도 좀더 뜨뚜를 노래를 통해 알아갈 수 있고 그건 꽤나 기쁜 일일거다 분명 ㅋㅋㅋㅋ

댓글

○○ 2017.09.26 23:13

무튼금주의

김밥새끼 빨길 잘 했다

댓글

↳ ○○ 2017.09.26 23:14 (220*.119.*)

ㅋㅋㅋㅋ 아나 리뷰적다가 너무 공감되서 당황스럽고 웃기다 ㅋㅋ 김밥새끼 빨길 잘 했다

댓글

↳ ○○ 2017.09.26 23:15 (219.*.230.*)

김밥새끼 빨기 존나 잘했다ㅋㅋㅋ

댓글

↳ ○○ 2017.09.26 23:16

우리의 안목에 초이스 좀 해주자 ㅋㅋㅋㅋㅋ
김밥을 선택한 나 병자 잘했어 사랑해

댓글

↳ ○○ 2017.09.26 23:18

이 댓글 넘나 웃겨 공감돼서 더 웃긴것 같다 ㅋㅋㅋㅋ
솔로 앨범 들으면서 더 느끼는건데
정말 나병자 안목에 초이스다 ㅋㅋㅋㅋ

댓글

↳ ○○ 2017.09.26 23:19

밥이 세 끼... 내 안목에 초이스

댓글

↳ ○○ 2017.09.26 23:26

ㅋㅋㅋㅋㅋㅋㅋㅋ

댓글

○○ 2017.09.26 23:22

가사 다 쓰라리지만 이부분이 제일 쓰라리다

"실수를 실패로 생각하는 버릇이 생겨서
실패를 하기 싫어 자꾸만 시도를 그르쳐
다치기 싫어서 새로운 만남을 기피해
혼자 우는 쪽이 편해 눈치 볼 필요 없어서"

뜨뚜가 그냥 맑고 밝게 무엇이든 잘 시도하고 다가서고 그러는 줄 알았는데
뭔가 어두운 내 모습을 나와는 다른세상사람이라고 생각했던 뜨뚜에게서 보는 것 같아서,
그리고 복가 나왔을 때의 나의 추측이 확인된 것 같아서 더 가슴이 아렸다

이러한 면이 있어서 뜨뚜가 연습벌레가 된 것이고
피나는 연습과 성찰을 통해서 더 정확하고 완벽하게 나같은 사람의 혼을 앗아가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뜨뚜의 이러한 면도 칭찬하고 인정하고 싶다
더이상 측은해하지 않으려다

댓글

↳ ○○ 2017.09.26 23:31 (219.*.230.*)

존나 공감한다
더이상 측은해하지 않으려다
나도 그러려다
근데..그것도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
같이 극복하자ㅎㅎㅎㅎ

 댓글 ○○ 2017.09.26 23:33

잘 하고 있는 뜨두는 믿어주고
자꾸 뜨두를 측은해하고 있는 나를 측은해하기로 했다. 응? ㅋㅋㅋㅋ

 댓글 ○○ 2017.09.26 23:39 (219.*.230.*)

맞다 시발 결국 내가 제일 측은해ㅋㅋㅋㅋ
극뽕!!!

 댓글 ○○ 2017.09.26 23:34 (220.*.119.*)

뜨두가 그냥 맑고 밝게 무엇이든 잘 시도하고 다가서고 그러는 줄 알았는데
이거 나도 너병자랑 똑같이 생각했다 이번 곡 통해서 생각이 바뀌게 된거같다 뜨두가 아무리 사람이라지만 그래도 나보다는 마냥 밝고 행복하고 워던 긍정적으로 사고하고 해결하는 스타일의 사람인줄 알았는데
뜨두도 사람이라서 그런지 힘든 일이 있고 도망까지 치고싶었다는거 보며 나같은 사람들이 뜨두에게 책임이라는 짐을 어깨에 걸리게 한게 아닐까 싶다 반성하고 뜨두가 힘들어했던것에 공감하고 슬퍼하며 더 가까워질란다 ㅋㅋ
이런 뜨두기에 쉬지않고 달려가는거겠지 위에 있는 댓 말처럼 뜨두 빨길 잘했다 죽을때까지 바비지옥에서 벗어나지 못할것같다

 댓글 ○○ 2017.09.26 23:37

바비는 보약이자 지옥이네 이런

 댓글 ○○ 2017.09.26 23:39

나도 뜨두가 그런 사람인줄 알았는데 그런 사람이 되고자 하는 사람인 것 같다ㅋㅋ'밝고 행복하고 긍정적으로 사고하고 해결'하러 노력하는 사람. 그게 지향점인 사람. 그게 내가 뜨두를 빠는 이유이기도 하다

 댓글 ○○ 2017.09.26 23:48

자기개발 추천 서적을 읽고 나는 더 나은 사람이 될거야!! 라는 진취적인(?) 인간이 있고
뭔가 스스로의 동굴을 만들어 그 곳을 파고 들어가 스스로를 단련하는 사람이 있잖나

나는 동굴파라서 여기 있는건가

 댓글 ○○ 2017.09.26 23:50

나도 동굴파다
자기개발서를 읽느니 소설을 읽겠어
도인 느낌의 그런 사람이라 난 ㅋㅋㅋㅋ
혼자 굴 들어가서 도닥는다 ㅋㅋ

 댓글

○○ 2017.09.26 23:41

난 뜨뜻 측은해하지 않는다 ㅋㅋㅋ 그냥 하루하루 발전해나가는 모습 보면 뚜뚝하기만 하다 ㅋㅋㅋㅋ 나
도 좀 발전해야할텐데

댓글

↩ ○○ 2017.09.26 23:42

나도 측은하지 않다 ㅋㅋㅋㅋ
내가 제일 측은함

댓글

↩ ○○ 2017.09.26 23:44

ㅇ | 곳은 병자들 자기 고백의 현장입니다
이게 다 뜨뜻때문?덕분? 이다 ㅋㅋㅋㅋㅋㅋㅋㅋ

댓글

↩ ○○ 2017.09.26 23:46

나도 뜨뜻 측은해하지 않는다!ㅋㅋㅋㅋㅋㅋ내가 측은하지ㅋㅋㅋㅋ

댓글

↩ ○○ 2017.09.26 23:50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병자들 자아분열 아니라는게 더 소름

댓글

○○ 2017.09.26 23:30

위에 올드한 느낌 받았다는 댓글이 보이는데 나도 처음 딱 듣고나서 떠오른 게, 뜨뜻가 미국 시절 들었다는
다.듀의 불면증이였다.

처음 힙합을 접한 게 다.듀였다고 했지. 무의식적으로 바비에게 많은 영향을 줬구나 싶었어 음악 취향 면에
서.

나만 느끼는걸 수도 있는데 약간 2000년대 감성 갖고있는것 같지 않냐? 임재.범 노래 열창하는것도 그렇
고 본인은 의식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날로그 감성이 있다 의외로

댓글

↩ ○○ 2017.09.26 23:31

아날로그 감성 인정한다 ㅋㅋㅋㅋㅋㅋ
그래서 다양한 세대의 마음을 두드리는거 아니냐ㅋㅋㅋㅋ

댓글

↩ ○○ 2017.09.26 23:35 (220*.119.*)

아날로그 감성 레알이다 ㅋㅋ 뜨뜻가 그래서 의외로 많은 연령대의 심금을 울리는거같다 ㅋㅋ

댓글

↩ ○○ 2017.09.26 23:42

불면증! 그러고보니 그런 느낌 좀 있네!
아 왜 이 생각을 못했지!!

↳ 또두 은근이 아니고 대놓고 아날로그 감성 좀 있다 ㅋㅋㅋㅋㅋ 게다가 한국적인 옛것 그런거도 ㅋㅋㅋㅋ
ㅋ

댓글

↳ ○○ 2017.09.26 23:45

또두가 인증차별 당해 함들때 버스에서 타고가며 들던 곡이라지 않았냐 그래서 정서적으로 쥔 위로가 되
던 곡이라 영향을 많이 받았나보다

댓글

○○ 2017.09.26 23:30

사실 리뷰 한다가에 이 곡을 쥔 나중에 했으면 하는 맘이 없잖아 있었다
뭔가 병자들의 한이 농축된 곡이라 생각이 들어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근데 사실 언제하든 무슨 상관이겠냐 일년 후에도 이년 후에도 **68년** 후에도 여기와서 내가 걷는 삶을 그리
고 그 미래의 내가 듣고 있는 이곡이 주는 위안을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자리였으면 한다

댓글

↳ ○○ 2017.09.26 23:32

68년 뭐냐 ㅋㅋㅋㅋㅋㅋㅋㅋ
병자 **100살**일때 말하는거냐 혹시? ㅋㅋㅋㅋㅋㅋ

댓글

↳ ○○ 2017.09.26 23:35

아니 잠깐 병자들 몇년뒤에 그거 **68년** 아니었냐 몇년이었냐 야 병자들 모여서 그 뭐냐

이래서 사람은 술을 마시면 안 되는건가 ㅜㅜ

댓글

↳ ○○ 2017.09.26 23:36

아니 시발 그거 너무 오래기다려야되잖냐
29년이다 **29년**

댓글

↳ ○○ 2017.09.26 23:36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왜 나 **68년**으로 생각했지
68년이면 시발 관속에서 몰라했냐 ㅋㅋㅋㅋ

댓글

↳ ○○ 2017.09.26 23:37

ㅋㅋㅋㅋㅋㅋㅋㅋ 나 진짜현옥나올뻔했다고!!!!!! 나는이미 없다고 ㅋㅋㅋㅋ

댓글

○○ 2017.09.26 23:43

이 곡 리뷰불판 흥한다 ㅋㅋㅋㅋ
나도 신난다 ㅋㅋ 병자들이랑 곡에 대해 수다떠는 기분이다 ㅋㅋ

댓글

↳ ○○ 2017.09.26 23:45

ㅋㅋㅋㅋㅋ 재밌다 ㅈㄹ 있다

댓글

↳ ○○ 2017.09.26 23:46

진짜 그렇다 ㅋㅋㅋ 신나는게 이런거였다!!!
이런 걸 기다린거다!!!
노래속에 담긴 뜬뚱을 만나고 이걸 나누고 막 이러는거!!!
난 도망친다면 김밥집으로 갈거다 ㅋㅋㅋ
(이미 지박령인데 그럼 도망이 아닌건...가 예라 모르겠다)

댓글

↳ ○○ 2017.09.26 23:49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나도 내 있을곳 여기뿐이네
맘이 제일 편하다
바비한테도 파라다이스가 됐음 좋겠다
런어웨이에서처럼 탈출하고픈 병동이 아니라
아픈 마음을 다독여주고 치유해주는 그런 병원!

댓글

↳ ○○ 2017.09.26 23:52

난 그냥 밥집에서 산다 ㅋㅋㅋㅋㅋ 나도 밥집이 켈 맘이 편하다 ㅋㅋㅋㅋ

댓글

○○ 2017.09.26 23:47

난 가끔 생각한다
병자들 곡 해석하는거 보면 뜬뚱이 어떤생각할지 엄청 엄청 궁금해ㅋㅋㅋㅋ
나 그냥 만드렸는데 꿈보다 해몽이 더 멋져 왜앤
이러는건 아니겠지 ㅋㅋㅋㅋㅋㅋ

댓글

↳ ○○ 2017.09.26 23:50

그거면 더 미친 농인거

feat. 전지적 빠르게 병자 시점

댓글

↳ ○○ 2017.09.26 23:54

모르면서 하는게 더 무서운거라니깐 ㅋㅋㅋㅋ

댓글

↳ ○○ 2017.09.26 23:52

왔썸 맨
워어허허허우 쏘 매니 글자
어칠어칠hey 매앤

이럴지도 ㅋㅋㅋ

댓글

↳ ○○ 2017.09.27 00:00

음성바비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댓글

↳ ○○ 2017.09.27 00:02

이럴지도 만 빼고 읽으면 되는거냐 ㅋㅋㅋㅋ
네 알았다 ㅋㅋㅋㅋ

댓글

↳ ○○ 2017.09.27 00:12

쏘 매니 글자 존나코엽넵ㅋㅋㅋㅋ

댓글

↳ ○○ 2017.09.26 23:53

ㅋㅋㅋㅋ 난 그냥 뽐 받아 만든거 뿐인데 병자들이 알아서 곡 해석해주고 의미부여해주네 하는거냐 ㅋ
ㅋㅋ

댓글

↳ ○○ 2017.09.26 23:58

나도 ㅋㅋㅋ 그리고 만약에 못봤다면 가서 보여주고 싶ㄹ 정도다
솔직히 뜨뚜가 보면 진짜좋아할듯 ㅋㅋㅋ 왜냐면 일개 병자인 나도 이렇게 좋은데말이다 ㅋㅋ

댓글

« First 1 2 3 4 5 6 Last »

댓글 새로고침

Comments '253'

« 1 2 3 4 5 6 »

↳ ○○ 2017.09.26 23:59

진지열매 물고 말하자면
 사람안에는 뭔가 신의 유전자같은것이 있다고 믿는데
 사람이 만들어내는 양질의 예술 작품에는 그런 신성성이 담긴다는 생각을 가끔 하곤 한다.
 예술가들을 보면 1:1로 만났을 때 별로더라도 그 작품에는 막 큰 세계가 들어있고 그렇지 않음?
 나는 유비에 성경구절이 있어서 그런지
 이 곡에서 뜨뚜 안에 담긴 잘-생긴 신을 닮은 인간의 모습을 보는 것 같은 느낌도 들었다
 (는 너무 큰 과장이려나)
 안그러면 병자들이 이렇게 자기 고백을 하게 되고 반성하고 그렇게 되지 않겠지
 그러니까 뜨뚜가 모든 해석들을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자신의 어떠한 깊은 모습을 가지고 작업을 했을 것이기 때문에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여러가지 감정들과 생각들을 불러 일으키는 것 같다
 아.. 원말인지 이해가게 썼나 모르겠다 ㅋㅋㅋ

💬 댓글

↳ ○○ 2017.09.27 00:03

무슨말인지 이해했다
 그분도 큰그림 그리셨다

💬 댓글

↳ ○○ 2017.09.27 00:07

난 신을 믿는 부류는 아니지만 이 순간 신에게 감사하다

💬 댓글

↳ ○○ 2017.09.27 00:07

알 것 같다. 뜨뚜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담겼을 그 감정을 우리가 받았다는 거.
 뭔가 이거 참 좋은 팬과 가수 사이아니냐 ㅋㅋ

💬 댓글

↳ ○○ 2017.09.27 00:17

99%의 노력과 1%의 영감이 있어야한다는 이 말을 사람들은 노력을 많이 생각하지만 실은 이 말은
 뒤의 1%영감에 초점이 맞춰져있다ㅋㅋㅋ
 영감이란 이렇게 중요한 것이지 ㅋㅋㅋ

💬 댓글

↳ ○○ 2017.09.27 00:13

나도 윗 병자 따라 진지열매 물자면

옛날에 어떤 고등학생이 '왕따'를 주제로 그림 그리는 과제에 너무 귀찮아서 흰 도화지 가운데 까만 점 하나만 그려 낸거야.

근데 그림 밑에 써 낸 작품 설명으로 대상을 받았어.

까만점은 피해자고 도화지의 나머지 흰 바탕은 방관자들, 소리쳐도 알아주지 않는 무지한 공기. 뭐 이런 내용

정작 그림을 낸 본인은 거저 상 탔다는 식이었지만 그걸 본 사람들은 이게 예술이라며 감탄하더라

이래서 예술이 재밌다ㅋㅋㅋㅋ정답이 없고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각기 다른 영감을 주니까

뜨뜻 의도이던 아니던 간에 병자들이 그렇게 느꼈으면 맞는거지 뭐ㅋㅋㅋㅋ

댓글

↳ ○○ 2017.09.27 00:18

그래 내 생각이 그런 느낌이었다 ㅋㅋ

전에도 몇번 말한적 있지만

수능에 나온 시를 쓴 시인이

자기 시를 해석해서 만든 문제를 하나도 맞추지 못했다고 ㅋㅋㅋ

특히 예술은 언제나 아는 만큼 보이고 해석하기 나름인 것 같다

댓글

↳ ○○ 2017.09.27 11:00

이건 예술이 문제가 아니라 씹어문드려진 빌어머글 수능의 문제다!!!!!!!!!!!!!!!!!!!!!!!!!!!!

댓글

↳ ○○ 2017.09.27 11:21

둘 다의 문제라고본닥ㅋㅋㅋㅋ

예술가의 의도보다 더 나은 해석도 있을수 있기 때문에 ㅋㅋㅋㅋㅋㅋ

별 뜻 없이 만들어도 사람들은 그것을 예술작품이라 인식하게되면 다양한 프레임을 씹워 해석하려 들지 않냐

댓글

↳ ○○ 2017.09.27 17:03

별 뜻없이 만든건 별 뜻없이 보게 되는 것 같다

나병자도 수능의 문제라 생각 ㅋㅋ

넓은 세계의 문제를 그놈의 등수매기기 줄세우기에 사용하다니 매우 화난다

그렇게 좁은 견해로 ~~얘기하니까~~ 문제를 내니까 시인의 의도가 왜곡되기 마련이다

댓글

↳ ○○ 2017.09.27 17:18

같은 것을 보더라도 그걸 보는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다는 말을 하고 싶었는데 예가 적절치 못했을지도 모르겠지만 난 수능이 중요한게 아니고 원작자의 의도와 달리 해석될 수 있다는 말을 하는거다. 좁은 견해라는게 나한테 하는말이냐?

댓글

↳ ○○ 2017.09.27 17:24

땃 병자가 수능이 문제라 한건 아마도 다양하게 해석 할 수 있는 '시'를 한 가지 해석에만 가
뒤놓고 그것만 정답이라고 하는 국어시험을 말하는것 같다ㅋㅋㅋㅋ애초에 정답이 없는 건
데 단어 하나하나 의미 부여하면서 일정한 틀에 끼어맞추려 하거든. 너 병자가 좁은 견해라
는 게 아니라 수능에 나오는 시 지문 해석 찾아보면 원작자 의도와 별개로 시를 이렇게 읽는
것이 과연 맞는건지 의구심이 들때가 많음ㅋㅋㅋ

댓글

2017.09.27 17:40

아니다 ㅋㅋㅋ 오해하게 해서 미안하다 ㅋㅋ 나병자는 객관식 문제유형을 말하는 거였다 ㅋㅋ

댓글

2017.09.27 17:41

아니 뭐냐 ㅋㅋㅋㅋㅋㅋ 전혀 몰랐다 ㅋㅋㅋㅋㅋㅋ 크롱할뻔했네 이빨 도로 집어넣겠다
ㅋㅋㅋㅋ

댓글

2017.09.27 17:48

ㅋㅋㅋㅋㅋㅋ 뭐라고 커엽냐 ㅋㅋㅋㅋㅋㅋ

댓글

2017.09.27 18:43

나병자가 만연체를 쓰다보니 오해를 불러일으켰나보다 ㅋㅋㅋ
옆에서 말걸어서 잘못쓴것도 있어 수정했다 ㅋㅋㅋㅋㅋㅋ
감히 이 신성한 땃다는 순간에 말을 걸다니 !!! ㅜㅜ!!
지난밤 신난 기억에 땃 다 정독하다가 원일이래나
당부터는 땃도 좀 담백하게 써야겠다 맨날 횡설수설이다 ㅋㅋㅋ

+

런어웨이가 대체 뭐길래 예술과 대한민국 교육의 평가제도까지 논하고 있다 ㅋㅋ ㅋㅋ
ㅋ

댓글

2017.09.27 00:05

나는 이노래 처음에 유비랑 같이 보는게 너무 힘들었다
그냥 뭐랄까 나는 좀 싸구려 눈물이라서ㅋㅋ 다른 슬픈 노래라던가 공감가는 노래들은 듣고 잘 울기도 하
는데 대부분은 내 상황에 대입하게 되서 그냥 내 자신이 측은하고 내 슬픈 감정이 복받쳐오르고 그래서 울
었거든.
근데 이 노래는 뜨뚜의 감정이 너무 잘 느껴져서.. 가족도 아닌 주제에 깊게 오랜시간 뜨뚜 팬을 하다보니
뜨뚜의 상황이나 여러가지 것들이 내 가족의 그것처럼 와닿아서 너무 힘들더라고 ㅋㅋ
아 바비 진짜 힘들었었지 그런데도 진짜 노력하면서 여기까지 왔구나 대견스럽기도 하고 그냥 뭐라 표현할
수 없이 막 몽글한게 올라와서 눈물이 쏟아져서 한동안 유비를 끝까지 플레이 못했었다.
참 지금 생각해도 이상한 감정이네 ㅋㅋㅋㅋ 가수라 팬이 감정을 이렇게 나눌 수 있게 하는 곡을 듣게된게
참 소중하지않냐 ㅋㅋㅋ 그나저나 끝맺음은 어떻게 하나 ㅋㅋㅋ

댓글

2017.09.27 00:11

끝맺음은 관속에서 하면 된다 ㅋㅋㅋㅋㅋㅋ

뭔가 나는 이 유비를 보면서 이미 다 알고 있다. 이런 감성엔 이미 백만번쯤 단련되어 버렸다. 라는 배리어를 치고 봐서인지 더 진솔하게 좀 다가와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컸었다

그런데 정작 한 번 볼 땐 봤는데 두 번 세 번을 보는게 더 힘겹다
아러아러 그래 그러치 하며 대충대충 들었던 지인의 속내를 잠들기 전 침대속에서 공핍으며 왜 그렇게밖에 대꾸를 못 했을까 스스로를 타박하는것 마냥

댓글

2017.09.27 00:27

나도 그런 감정이었던 것 같다
누구보다 누구만큼 이런건 의미없지만
나름 몇년간 진짜 진지하게 뜨뚜를 사랑하고 좋아했던 시간을 보냈는데
그래서 나에게 이 노래가 참 충격적이었고 유비도 각잡고 해석해볼라고 애써봤다
솔직히 리뷰라고는 제대로 쓸 줄도 모르는데 말이지
처음 시작부터 뜨뚜의 눈물 한 방울.
오히려 담담한 유비라서 생각의 폭이 넓어진 것 같기도 하다
열린 해석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여기서 더 처절해지는건 나는 개인적으로 원치 않는다
유리겠는데 피가 난다든지 눈물을 엉망으로 펄펄 흘린다든지...
만취해서 고향치며 갈지자로 달리다 아스팔트에 얼굴을 갈아버린다든지 ㅋㅋㅋㅋ
그런게 아니어서 나는 개인적으로 좋았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고 병자들처럼 같이 얘기할 수 있는게 좋다
내가 뜨뚜 만나고서 뜨뚜 알고서 뜨뚜 팬이 되고서 많이 달라졌다 생각했다

댓글

2017.09.27 00:40 (219*.230.*)

아스팔트에 얼굴을 갈아버린다던지ㅋㅋㅋㅋ
존나 극단적이야ㅋㅋㅋㅋㅋㅋㅋㅋ
근데 뜨뚜 그런 모습도 sexy할거 같아 궁금하다

댓글

2017.09.27 00:52

그런것도 좋냐!!! 이병자 안되겠네 끌어내! ㅋㅋㅋㅋ

댓글

2017.09.27 00:42

그런 장면 나오면 좀 오글거렸을수도 있다 ㅋㅋㅋㅋ 뜨뚜 연기력이 아직 ㅋㅋㅋㅋ

댓글

2017.09.27 00:38 (219*.230.*)

내가 쓴 글인줄
나도 이노래를 들으면서 내가 아니라 뜨뚜의 감정에 대입해서 너무 심하게 몰입되어 힘들었다
도대체 내가 뭐라고 이렇게까지..자괴감이 들 정도였다
내가 뜨뚜를 너무 오래 너무 깊게 좋아했나?
가수와 일개 팬이 뭐 이렇게까지..
약간 두렵기까지 한 감정이었어

솔직히 이번 앨범을 통해 미치게 좋은 곡 10곡이나 선물받아 너무 행복하지만

나에게 뜨두가 어떤 존재인지 스스로 깨닫고 인정하게 해준 것도 매우 큰 의미였다
 난 이번 앨범 너무 사랑해
 이 뜨두답지 않은듯 뜨두다운 런어웨이도 너무 사랑한다

댓글

○○ 2017.09.27 00:10

김뜨두 여기서 리뷰 보면서 코찡찡 하는거 아니겠지
 (뚜두)

댓글

↩ ○○ 2017.09.27 00:11

뚜두

댓글

↩ ○○ 2017.09.27 00:11

하품했다고 하겠지 ㅋㅋㅋ

댓글

↩ ○○ 2017.09.27 00:18

ㅋㅋㅋㅋ 하필 또 마늘이...! ㅋㅋㅋㅋ

댓글

↩ ○○ 2017.09.27 00:57

첨부 (2)





매늘 ㅋㅋㅋㅋ

댓글

2017.09.27 01:16

ㅋㅋㅋㅋㅋ 봐도봐도 코엽네 ㅋㅋㅋㅋ

댓글

2017.09.27 11:22

매늘 그래서 베게 보냈었다 ㅋㅋㅋㅋㅋㅋ
존나코여워..... 애기같아 보임

댓글

2017.09.27 00:11

근데 리뷰불판들은 베게 안가냐? 두고두고 보고프다

댓글

2017.09.27 00:13

뭐 일단 리뷰 카테 누르면 주르륵 모여있을거긴 한데
이게 베게 비고 누워서 편하게 읽을 글은 아니니 굳이 보내라

댓글

2017.09.27 00:14

베게 빌 일은 아니지

댓글

2017.09.27 00:14

저 잠시만요 베게 베게 베게 뭐가 맞죠

댓글

2017.09.27 00:20

베게요

베스트 게시판이니까 ㅋㅋㅋ

댓글

2017.09.27 00:20

야 왜 다 틀리냐ㅋㅋㅋㅋㅋㅋㅋㅋ
베고 자는 그거는 베개다!!! ㅋㅋㅋㅋㅋㅋ

댓글

2017.09.27 00:21

편치라인으로 읽어줘라 ㅋㅋㅋ

댓글

2017.09.27 00:19

배개 보내고 싶은 병자들이 있으면 배개 가겠지 누르고 싶으면 눌러라 ㅋㅋㅋ

댓글

2017.09.27 00:26

외모 언급해도 되냐
저 유비 첫화면 옆모습 실화냐
헤어스타일이랑 흰면티에 자켓 입은거 ㄹㅇ 맘에 들었다
나병자는 너무 양전한 흑발도 너무 오픈꾸뛰르적인 아방가르드한 스타일도 별로다
딱 저 정도가 좋은 것 같다 ㅋㅋ

댓글

2017.09.27 00:33

나도 안그래도 그 얘기도 하고 싶었다! ㅋㅋㅋ
난 몸에서 헤어스탈도 좀 어딘가 거치고 방황하는 느낌을 잘 살린거 같다 ㅋㅋㅋ 저거 아마 빨전찍던
때 헤어 같은데 ㅋㅋ

댓글

2017.09.27 00:54

나는 흑곰같은 저것도 맘에 들었다 ㅋㅋㅋ
머리랑 잘 어울려

댓글

2017.09.27 00:40

내가 유비에서 쥔 좋아하는 장면은 실수는 실패를 이때 뜨뚜가 쳐다보다 고개 돌리고 랩하며 일어서서 걷
는 장면이다.
그 바로 전에 바람을 느끼듯 자유롭게 앉아있는 뜨뚜가 있는데 이 분위기랑 랩하기 전 쳐다보던 분위기랑
달라서 좋다 ㅋㅋ

댓글

2017.09.27 00:41

이건 진짜 움짤이 있어야하는데 ㅋㅋ

댓글

○○ 2017.09.27 01:59

첨부 (1)

좀 늦었지만 ㅋㅋ



댓글

↪ ○○ 2017.09.27 02:08

바로 이 장면이다! 이거 맞다!
첨볼때부터 이때 꽃혔는데 계속 생각나고 하더라

댓글

↪ ○○ 2017.09.27 08:13

워 이거 이번 착장이자능 머리도 글코
추가촬영인거나 원래 촬영부터 머리스탈 저랬던거냐 헛갈린다 ㅋㅋㅋㅋ

댓글

↪ ○○ 2017.09.27 11:49

그러냐! 헤어가 이번 활동때 머리냐ㅋㅋㅋ
그럼 이거 추가촬영인건가 ㅋㅋㅋㅋㅋ 그러고보니 옷 입은것도 뭔가 바뀐 코디느낌도 나고 ㅋㅋㅋ

댓글

↪ ○○ 2017.09.27 13:32

아니 근데 다시 헤어에 집중해서 보니 그때에도 살짝 저렇게 드라이했던 썸이 있는듯해서 헛갈린다
그때 의상 잘 보관했다 써먹는건가

댓글

○○ 2017.09.27 00:49 (219.*.230.*)

나는 앞부분 물가에서 뜨뚜가
거울속에 왜 더이상 내가 알던 내모습이 아닌데.. 할때
그때가 참 좋다
뜨뚜 눈매와 노래할때 입꼬리 전체적인 분위기 넘 좋아

그리고 나도 이 헤어 너무 맘에 든다
아무나 어울리기 힘든데 뜨뚜에겐 찰떡

댓글



2017.09.27 00:57

맞어 ㅋㅋㅋㅋ 헤어 맘에 든다

댓글

[« First](#) [1](#) [2](#) [3](#) **[4](#)** [5](#) [6](#) [Last »](#)[댓글 새로고침](#)

괜찮아질 거야 멀리
 이 긴 방황의 저 끝에
 내가 찾는 내 모습이
 날 기다리고 있길 Yeh ye
 Yeh ye ye
 KIMBOBBY.NET BESTBOARD

길을 잃어버린 나는
 이젠 지쳐서 나아갈 수 없어
 여기서 나를 데려가 줘
 숨쉬기 어려워
 Yeh ye

길을 잃어버린 나의
 손을 잡아줘
 I don't know why I'm here
 I wanna runaway
 I wanna runaway

아무도 날 모르는 곳에
 아무도 찾지 않는 곳에
 쓰러진 날 일으켜줘
 I just can't go on 날 데려가 줘
 I wanna runaway



[☰ 목록](#)
[Facebook](#)
[Twitter](#)
[Google](#)
[Pinterest](#)
[↑](#)
[↓](#)

Comments '253'

« 1 2 3 4 5 6 »

👤 2017.09.27 01:18

맘에 든다 헤어 너 뜨뚜꺼 해라

💬 댓글

👤 2017.09.27 02:03

첨부 (1)



KIMBOBBY.NET BESTBOARD



좋다

댓글

○○ 2017.09.27 02:09

좋다 좋다
이때 웃기 으쓱 하며 고개 살랑 짓는 저것도 좋았지

댓글

○○ 2017.09.27 08:31 (219.*.230.*)

맞다 이거다
이부분 너무좋다고!!
새삼 참 까리하게 생겼어
부러운 얼굴이다 진심

고맙다 병자야

댓글

○○ 2017.09.27 01:05

베게 갔다 워후!

댓글

○○ 2017.09.27 01:17

아니 ㅋㅋㅋㅋ 베게 베고 싶은 병자들이 이렇게나 많았다니 ㅋㅋㅋㅋ

댓글

○○ 2017.09.27 01:18

베게탈트붕괴온다 ㅋㅋㅋㅋㅋㅋ

댓글

○○ 2017.09.27 11:09

베게(pillow) 비고 누워서 편하게 읽을 글은 아니다
= 존나 진지빠는 좋은 글이다. 그러므로 추천해

베게(베스트게시판) 빌 일은 아니지
= 베스트 게시판 비워 놓으면 안되지(베게를 빈다는 윗병자의 말에 연결되는 펀치라인(?)). 그러므로 추천해



왜 이거 몰라봐주냐ㅋㅋㅋ 자꾸 맞춤법 얘기만 하고 ㅋㅋㅋㅋㅋㅋㅋㅋ

댓글

KIMBOBBY.NET 2017.09.27 BOARD

맞춤법을 맞춰서 써줬으면 지적을 안했을것이다 ㅋㅋㅋㅋ내가 설마 편치라인을 몰랐겠냐 바비 팬인데 ㅋㅋㅋㅋㅋ
베개탈트붕괴가 온건 병자들 탓이다!!

댓글

2017.09.27 13:33

젤 먼저 틀렸던 병자 무릎꿇는다 술이 웬수라고 하자

댓글

2017.09.27 16:11

ㅋㅋㅋㅋㅋㅋㅋㅋ 그렇게 깊은 뜻이 ㅋㅋㅋㅋㅋㅋㅋㅋ
편치라인이었구나 ㅋㅋㅋㅋㅋㅋㅋㅋ

댓글

2017.09.27 11:00 (1*.153.*)

완전 뒷북 리뷰 었고 간다ㅎㅎ

유비에서 부모님과 커서 재회하는 씬에 배우분들 말고 실제 뜨뚜부모님이 나오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작년 일본 콘서트 디비디였나? 콘서트 끝나고 어무니 생신축하파티하는게 너무 예쁘고 아련하고 그랬거든. 그 감동을 현재 한국에선 가정에서 누리고 있겠지만 추억의 챔터처럼 두뜨의 의미있는 유비에 남겼으면 하는 아쉬움이 짙게 남았다. 근데 그 장면이 소취됐다면 진짜 눈물샘 대홍수 날지도.

댓글

2017.09.27 11:06

리뷰에 뒷북은 없다 ㅋㅋㅋ 언제 다시 들고 또 어떤 생각이 떠오를지 모르는데 리뷰는 항상 현재진행형이라고 생각함ㅋㅋㅋ 우리 시간이 지나고 어느날 문득 뜨뚜 음악에 대해 어떤 생각이 떠오른다면 언제고 다시 찾아와 한마디 남겨보자 ㅋㅋ

그나저나 난 유비에 실제 부모님 등장했다면 약간 대놓고 노린 신파영화 같이 느껴질지도 모른단 생각이 들어 지금이 더 좋다 ㅋㅋ

댓글

2017.09.27 11:08

뒷북이라니 이 글이 최신글(?)인데 무슨 뒷북이냐 ㅋㅋ

나는 오히려 진짜 부모님이 나올까봐 조마조마했다 ㅋㅋㅋㅋ 연기 제대로 하는 분도 아니고 그건 아닌거 같다 ㅋㅋ

댓글

2017.09.27 13:19

병자들 느낌의 미학 모르냐

이건 찰나를 놓친것일뿐이지 너 덕에 또 병자들 입트이고 그러는거 조으다조으다

댓글

 댓글

 댓글

 댓글

 댓글

 댓글

 댓글

댓글

댓글

http://kimbobby.net/xs/index.php?mid=board&category=4150&document_srl=99832... 2018-08-31

☞ 내게 기대~ 내게 기대도 돼~
☞ 뜨뜻는 나를 행복하게 해~ 뜨뜻도 나로 행복했으면 해~

☞ 내게 기대~

KIMBOBBY.NET BESTBOARD

댓글

○○ 2017.09.27 17:43

조회수 300되었다! ㅋㅋㅋㅋ 흥하네

댓글

☞ ○○ 2017.09.27 17:55

ㅋㅋㅋ 런어웨이 리뷰 불판 성공적이다 ㅋㅋㅋㅋㅋ 확실히 할말이 많아 그런지 댓글도 많이 달리고 조회수도 많아지고 ㅋㅋㅋㅋ

댓글

☞ ○○ 2017.09.27 17:56

난 몇년 후에 다시 봐도 또 할 말 생길거 같다 ㅋㅋ

댓글

☞ ○○ 2017.09.27 20:49

나도 그렇다 ㅋㅋㅋㅋ 그냥 돌아서면 할말이 생각난다 ㅋㅋㅋㅋ

댓글

○○ 2017.09.28 02:21

일하기 싫을때마다 들어와서 이 리뷰만 복습하고 또 하고 또 하고있다

내년쯤엔 여기 댓글이 400개쯤 달리려나

댓글

☞ ○○ 2017.09.28 02:24

기분이 이상하다 후우

댓글

☞ ○○ 2017.09.28 12:54

ㄴㄷㄴㄷ 보고 또 보고

댓글

☞ ○○ 2017.09.28 21:28

보고 나서 괜히 댓글 한개씩 더 달고 ㅋㅋㅋㅋ

댓글

○○ 2017.09.28 21:28 (219*.230.*)

정신 없이 달렸지 어른이 된줄 모르고

이부분 왜이렇게 아프냐?

쇼미때 무대 씹어먹었던 그 대단했던 뜨뜻가 겨우 막 스물이었다

연결고리 때 간주 나오면서 서늘한 표정으로 이노래 알아? 따라볼러! 했던 뜨뚜 표정이 떠오르면서
 ≡ 그 어린나이에 어떤심정으로 어떤각오로 그 압박감을 이겨내고 그런 무대를 만들어 낸건지..
 그땐 대단하다고만 생각했는데 왜 자꾸 아프냐

원 소미 땀 뻘 땀 정말 전쟁같은 19,20,21을 정신 없이 달리다 보니 자신도 모르게 어른이 되어버린 뜨
 두!
 뒤통은 선장통도 만만치 않았으리라 생각된다
 지금도 진행중일 것이고!
 그래도 뜨두는 잘 해낼거야
 항상 응원할거다

댓글

2017.09.28 21:33

맞다 그 가사 진짜 심금을 울렸다
 뜨두의 바빻단 20살이 떠오르면서... 그 영상도 있었잖냐 ㅋㅋ

나도 사실 언제 뜨두가 이렇게 어른이 됐는지 몰겠다
 분명 침봤을땐 미성년자였는데 ㅋㅋㅋㅋㅋㅋ 그냥 같이 정신없이 가다보니 뜨두가 어른이 되서 교복을
 입고 수학여행을 찍는다며 제주도도 떠났다 ㅋㅋㅋㅋㅋㅋㅋㅋ
 우리는 뜨두가 선물로 주고간 앨범 10곡 물빨살하며 리뷰하며 행복고 있고 ㅋㅋㅋㅋ

지나간 시간들 중에 의미없던 시간은 그래도 없었으니 다행이지 않냐
 뜨두는 한해를 허투루 보낸 적이 없고 매해 무언가를 해내왔으니까 ㅋㅋㅋㅋㅋㅋㅋㅋ

댓글

2017.09.28 21:41 (219.*.230.*)

맞아 뜨두는 한순간도 허투루 보내지 않았어
 작년엔 또 팔라라는 미친 에너지와 개성으로 뽕뽕 뭉친 오직 뜨두에게만 어울릴거 같은 곡도 선물해
 주었고!

차마 기대조차 못했던 교복입은 모습까지..
 시발 교복밥 너무 좋지 않냐?
 기승전교복밥 (요즘 나의 뇌상태ㅋㅋ)

댓글

2017.09.28 21:42

ㅋㅋㅋㅋㅋㅋㅋㅋ 기승전교복밥 나네 ㅋㅋㅋㅋ
 근데 나 좀 궁금한게
 교복 좋아하면 문제있는거냐? 철렁철렁임?

댓글

2017.09.28 21:47 (219.*.230.*)

글쎄..딱히 문제 있을건 없다고 본다
 대체 뭐가 문제임?
 그런데 이런 내가 부끄럽고 왠지 수치스러운건 왜지?ㅋㅋㅋㅋㅋㅋ
 심지어 너무 환장하니까 나 스스로 어이가 없을지경
 이거 무슨 병인거니?

댓글



○○ 2017.09.28 21:49

아니 사실 나는 그냥 여자건 남자건 교복이 참 풋풋하고 청춘이라는 느낌 물씬나서 좋아하는데
병자들 반응이 처음엔 '내가 이런걸 좋아할 줄 몰랐고 그런 취향이 아니다'라며 몸을 사리길래ㅋㅋ
ㅋㅋ 나는 원래 좋아했는데 이게 이상한건 아니겠지

KIMBOBBY.NET BESTBOARD

댓글

↩ ○○ 2017.09.28 21:53 (219.*.230.*)

미안한데 나는 그냥 풋풋하고 보기좋아서만은 아닌거 같다
왜냐면 여자교복에는 아무런 감흥이 없거든ㅋㅋ
하고싶은 말이 넘치지만 여기까지 하겠다
홀리한 런어웨이 불판은 그만 어지럽히겠다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댓글

↩ ○○ 2017.09.28 21:56

ㅋㅋㅋㅋ 하여간에 병자들 ㅋㅋ 끝까지 진지하질 못하다 ㅋㅋ 드립을 하루라도 안치
며 입안에 가시가 돋냐 ㅋㅋ

댓글

↩ ○○ 2017.09.28 22:07

홀리한 불판ㅋㅋㅋㅋㅋㅋ

댓글

↩ ○○ 2017.09.28 21:54

가지 바이러스 버금가는구만 러너웨에서 교복밥 찬양이라니 절레절레

댓글

↩ ○○ 2017.09.28 21:54

그래여!
나 교복밥 좋아해여! 교복밥에 환장해여!!
나는 전혀 복스럽지 않다?!

은팔찌 채우려면 채워라!!

댓글

↩ ○○ 2017.09.28 21:53

팔라야 사랑해
교복밥 사랑해
교복입고 팔라부르는거 보고싶다 ㅋㅋ

댓글

↩ ○○ 2017.09.28 21:54

이건 무슨 조합인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

댓글



2017.09.28 21:56

병자도 보고싶잖냐 ㅋㅋㅋㅋ 벌써 상상하고 있는거 다 알고 있다! ㅋㅋㅋㅋ

댓글

KIMBOBBY.NET — BESTBOARD



2017.09.28 21:57 (219.*.230.*)

교복입고 팔라래
어떡하지? 시발 상상했어

댓글



2017.09.28 22:06

미친 생각지도 못했는데 존나 좋아 ㅅㅂ

댓글



2017.09.28 22:09

교복입고 팔라 부르다 막판에 뜨뚜가 거칠게 재킷을 벗어 던지고서 호렙 춤 추는거 상상하니까 미친 ㅋㅋㅋㅋ 존나 금욕적인데 위험해 ㅋㅋㅋㅋ

댓글



2017.09.28 21:58

이 가사 얘기를 진지하게 하려다가 밑에 댓글에 나도 모르게 넘어가버렸다 ㅋㅋㅋㅋㅋㅋㅋㅋ
ㅅㅂ 병자새끼들 누가 병자 아니랄까봐 각종 바이러스란 바이러스엔 다 취약해서는 가지병에 교복병에
ㅋㅋㅋㅋㅋㅋ

댓글

« First 1 2 3 4 5 6 Last »

댓글 새로고침

✓ 댓글 쓰기

📄 에디터 선택하기

📎 파일 첨부

여기에 파일을 끌어 놓거나 파일 첨부 버튼을 클릭하세요.